

# 제비뽑기 선출방식을 통해 나타난 중세 노브고로드인의 세계관\*

황성우\*\*

| 목 차 |

I. 문제제기	정치제도
II. 노브고로드의 흥망성쇠 (1136-1478)	IV. 대주교 선출방식에 나타난 노 브고로드인의 세계관
III. 노브고로드의 민주적 전통과	V. 결론

| 논문요약 |

노브고로드에서 시행된 베체의 존재나 대주교의 선출방식에서 나타난 제비뽑기방식은 당시 러시아 및 서유럽 세계의 공직선거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노브고로드가 러시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초기 키예프 공후가 통치할 시기에, 노브고로드는 야로슬라프 공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그의 정치적 배려 덕분에 노브고로드에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둘째, 1054년 야로슬라프 현공의 사후, 키예프 루시는 여러 공국으로 분열됐고, 그 결과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인의 부족연합, 혹은 연합체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분권화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지역 중심지들의 홀로서기 전략이 유효했던 시기에, 노브고로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노브고로드 공화국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베체라는 실재적 기구의 존재 여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 나타난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출신성분이나 신분고하에 따라 공직자가 선출되는 것이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아니라, 신앙심, 신실한 종교적 믿음, 정직한 삶의 태도 등의 기준에 따라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지도자로 선발된다는 점이야말로 중세 노브고로드인이 가진 민주적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소노미아’(Isonomia)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세적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자유민들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베체와 고위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주교 후보로 선출되는 대주교 선거과정에 나타난 절차를 고려할 때, 노브고로드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소노미아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노브고로드인들의 민주적 전통과 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주제어 : 러시아, 노브고로드, 베체, 평등, 제비뽑기

## I. 문제제기

노브고로드는 오늘날 러시아 북서연방관구에 속한 노브고로드 주의 중심도시이자, 862년 바이킹의 일원이었던 류리크(Рюрик)가 트루보르(Трувор), 시네우스(Синеус) 등 두 형제와 함께 슬라브인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 땅에 도착해 세운 러시아 최초의 국가 노브고로드 공국의 수도였다. 20년이 지난 882년 올레그(Олег, 879-912) 공후가 ‘모든 러시아 도시의 어머니’라 칭하면서 키예프를 새로운 러시아 사회의 중심지로 구축하기 전까지 노브고로드는 러시아의 심장부 역할을 했고, 노브고로드를 포함하는 러시아 북서 지역은 발다이 구릉지대로 표현되는 러시아 수로체계의 근원지이자, 발트 해로부터 흑해, 카스피 해로 이어지는 고대 러시아 교역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전략적 핵심공간이었다.

‘러시아의 천년 고도(古都),’ ‘러시아 모피제국,’ ‘러시아 고대문화의 보고(寶庫),’ ‘러시아 민주주의의 메카’로도 불리고 있는 노브고로드는 러시아 역사에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

에서 볼 때, 흔히 짜르와 전제정치로 대변되는 러시아의 정치문화 속에서 예외적으로 노브고로드는 시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자율적 의사결정기구 ‘베체’(Веце)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전통을 유지해 ‘노브고로드 공화국’<sup>1)</sup>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노브고로드는 한자동맹의 동쪽 전초기지이자 ‘발트 해-흑해’ 교역로의 북쪽 중심에 위치하여, 상업도시로서 명성을 크게 떨쳤으며, 특히 북극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며 모피제국으로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그 결과 중세러시아의 경제 중심지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Орлов, Георгиев 2004, 40; Jackson 2008, 83-92).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노브고로드는 초기 러시아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다양한 목조 건축물과 연대기 제작, 이콘 예술 등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적 흔적을 남겼다.

노브고로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역사적 중요성 중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발전한 중앙집권적 정치문화가 축적되어 계승된 러시아 풍토에서 자율적 의사결정기구인 베체는 민주적 정치문화를 포함한 예외적 제도로써 눈여겨 볼만하다. 베체는 모든 자유민들의 가장(家長), 혹은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체로 알려져 있다. 베체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아닌 만장일치제를 고수했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베체의 소집을 알릴 수 있었으며, 회의는 베체의 종이 울리면 시작됐다. 또한 베체의 회의 장소는 주로 교회 광장이나 시장터였다. 베체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법 제

1) 중세 노브고로드를 공화국으로 부르는 이유는 베체라고 하는 자율적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자유민들이 모여 마을의 중요사안을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베체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띤 고유한 제도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물론 노브고로드가 오늘날과 같은 공화국의 정체를 갖고 있었느냐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논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공화국으로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오히려 노브고로드인들의 정치참여과정에 나타난 민주적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실제로 노브고로드인들은 자신들의 ‘도시-국가’를 공화국이 아닌 ‘세상의 지배자 대노브고로드,’ 혹은 단순히 ‘노브고로드 땅’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했다. 참고로 야닌(Yanin V. L.)은 귀족과 상위계층들이 베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브고로드를 ‘귀족 공화국’(бояр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으로 규정했다(Riasanovsky 2011, 128-129). 또한 ‘봉건적 공화국’이라는 용어는 소비에트 학자들이 중세 노브고로드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됐다. 그 결과 ‘원시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공산주의’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사관의 인류발전단계 차원에서 논의되는 봉건적 공화국 명칭은 러시아에 과연 서유럽과 동일한 봉건제도가 시행됐느냐는 논쟁도 야기했다. 공화국 명칭의 문제는 논문의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기에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주제에 적합한 내용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정, 세금 징수 등 도시의 주요한 현안을 논의하여 결정했으며, 또한 공후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었고, 노브고로드의 시장 역할을 했던 포사드니크(Посадник)와 군사령관 격인 천인대장(千人隊長) 트이사츠키(Тысяцкий),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대주교 후보를 선출했다(Riasanovsky 2011, 128). 특히 베체의 결정에 따라 세 명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다시 세 명의 후보자 중에서 제비뽑기 방식의 추첨을 통해 주교 혹은 대주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해당시대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던 노브고로드만이 고수한 독특한 관리임용 방식이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전통은 노브고로드인들이 1136년 노브고로드 공후였던 브세볼로드 므스티슬라비치(Всеволод Мстиславич)를 해임하고, 1156년 스스로 대주교를 선출한 시점부터 1478년 모스크바 이반 3세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됐다.

러시아내 다른 지역과 구별된 노브고로드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의사결정기구와 선거방식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모든 자유민이 참여하지만, 하층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베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세 노브고로드를 ‘공화국’이라 부르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 의사결정 방식과 선거 방식에 나타난 노브고로드인들의 세계관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글을 쓰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그런 까닭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유독 노브고로드에서 베체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노브고로드인들이 생산한 제도와 기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독특한 추첨방식에 내재된 중세 노브고로드인이 가진 정치문화와 그들의 세계관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사실 국내에서 노브고로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단지 노브고로드와 관련해서 베체라는 고대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나, 이와 관련하여 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에서 베체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됐다거나 형제 도시로서 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만 문헌 속에 간헐적으로 등장할 뿐이다. 또한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노브고로드에서도 중세 노브고로드인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기구와 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sup>2)</sup>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 행태가 교과서적 민주주의와 다르게 운영된다 할지라도 러시아에서 설득력을 갖고 유지되는 이유를 역사적 기원에서 찾아 그 현실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듯이,<sup>3)</sup> 러시아에서 민주적 전통이 실존했다는 증거를 중세 노브고로드의 사례를 통해 밝히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짜르 전체정치에 익숙한 러시아인들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통을 보유했던 러시아인들의 정치문화와 세계관도 밝혀 그들의 다양한 사고체계 및 사상적 전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된 연구범위는 1136년부터 1478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1136년은 노브고로드인들이 자신들의 공후를 해임하고 독자노선을 걷게 되는 시발점이 된 연도이며, 1478년은 모스크바 공후 이반 3세에게 굴복하여 그 이후 더 이상 노브고로드인들이 누려왔던 독자행동이 지속되지 못했던 연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본문에서는 중세 노브고로드의 흥망성쇠를 시간적 궤적에 따른 역사적 서술을 통해 고찰하고, 노브고로드인들의 의식구조와 사유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서 노브고로드의 독특한 기구와 제도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로 대주교 선출과정에 나타난 추첨방식을 통해 중세 노브고로드인들이 가진 세계관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 
- 2) 이 점에 대해서는 첫째, 1990년대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이라는 과도기에 노브고로드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자국 내에서조차 노브고로드의 독자적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동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지방 및 도시의 전통문화 및 상징을 새롭게 복원하여 구현하고자 할 때도 푸틴식 민주주의를 확산, 강제하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전략적 시도에 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성이 반영된 민주적 전통과 가치를 부각시키는 쉽지 않았다고 본다. 지방 자치단체의 수장 역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행정력 강화 노력에 반기를 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노브고로드의 베체와 그 상징물인 베체의 종은 단지 관광상품으로 전략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전략품목으로 남아 있을 뿐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3) 이와 관련해 크레믈린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수르코프가 고안한 ‘주권민주주의’ 개념은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창안한 주권민주주의 개념은 러시아의 토착적 민주주의 모델을 합리화하려는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노브고로드의 흥망성쇠 (1136-1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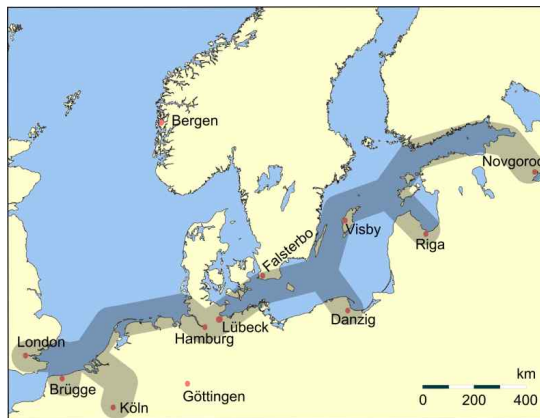
중세 노브고로드 공국은 ‘노브고로드 공화국’(Новгород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혹은 ‘노브고로드 땅’(Новгородская земля)으로 불리기도 하며, 영토상 최대 전성기였던 12세기에서 15세기, 구체적으로 노브고로드인들이 키예프 루시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고 스스로 군주를 선출하여 민주적 전통을 확립한 1136년부터 이반 3세가 지배하는 모스크바 공국에 의해 멸망하는 1478년까지 발트 해로부터 우랄산맥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통치했다. 물론 광활한 국가의 중심지는 지금의 대노브고로드 시이다. 당시 노브고로드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부를 때, 세상의 통치자 위대한 노브고로드(Государь Господин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Господин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라고 불렀다.

‘대노브고로드’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하는 노브고로드는 발트 해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고대시절부터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다. 흔히 말하는 ‘바라그인으로부터 그리스인까지’ 혹은 ‘발트 해로부터 흑해까지’ 교역로에 위치한 노브고로드는 유럽 러시아 수로체계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발다이 구릉지대에 속한 지리적 공간이었다.<sup>4)</sup> 즉 한자동맹의 동부 전초기로서, 또한 발트 해로부터 흑해, 카스피 해에 이르는 수로체계의 북쪽 중심지로서 노브고로드는 상업도시 성격이 강한 면모를 띠고 있었다. 더욱이 수로체계를 통한 교역뿐만 아니라, 노브고로드가 가진 부의 원천은 오네가 호수와 라도가 호수 주변을 둘러싼 북쪽과 동쪽에 자리잡은 울창한 산림지대였다. 이 산림지대는 페초라 강과 우랄 산맥의 북극해 지역까지 펼쳐져 있는데, 노브고로드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발트 민족과 핀-우르그 민족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며 영토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재와 같이 국경선이 확정되어 ‘선(線)의 지배’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과거에는 ‘인(人)의 지배’가 당연시 됐기 때문이다.

4) 발다이 구릉지대 및 ‘발트 해-흑해’ 교역로의 지리적, 경제적, 전략적 의미와 수로체계에 따른 러시아 공간의 확장에 대해서는 황성우(2009), 황성우(2011) 등 두 편의 논문 참조.

12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하나의 공국으로서 성장한 노브고로드는 영토 확장에도 힘을 쏟아 북쪽과 북동쪽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오네가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한 노브고로드는 북드비나 강을 따라 백해 연안까지, 14세기 초반에는 북극해, 바렌츠 해, 카라해, 그리고 서시베리아의 오브 강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노브고로드의 주된 교역품은 모피였다. 노브고로드의 모피는 9세기에도 유럽사회에 명성을 떨칠 만큼 유명해서 비잔티움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거래됐다(Jackson 2008, 86-87). 이 밖에 꿀, 벌꿀 술, 밀랍 등이 교역상품으로 거래됐으며, 볼가 강 유역과 드네프르 강을 거쳐 키예프, 동로마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서쪽으로는 발트 해 지역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도 노브고로드의 상품은 제법 인기가 많았다. 이렇듯 다양한 지역까지 교류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자동맹 상권과 수로체계의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 한자동맹 주요 교역로

출처: <http://www.ru.wikipedia.org/wiki>

북부 우랄지역에 거주하던 우그르 민족들도 노브고로드에 공물을 받쳤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브고로드 도시의 북쪽지역은 모피, 해양동물, 소

금 등이 풍부하여 노브고로드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다. 노브고로드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14세기말까지도 모스크바 공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했다. 이곳을 상실한다는 것은 노브고로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노브고로드가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브고로드가 모스크바 공국과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부의 원천인 경제 중심지를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은 곧 노브고로드 공국의 붕괴로 이어졌다.

13세기 이후 ‘볼가 강 무역로’가 노브고로드 남동쪽에 위치한 신흥 로스토프 공국에 의해 장악되고, 비잔틴 제국이 점차로 쇠퇴하여 남쪽의 흑해 교역로 역시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노브고로드의 경제를 살린 지역은 서쪽의 발트 해와 스칸디나비아 지역이었다. 노브고로드인들은 서쪽 교역로를 꾸준히 개척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결과 노브고로드에는 스웨덴인들이 형성한 ‘고트족의 시장’(Gothic court)이 존재했고, ‘독일인 시장’(German court)에는 한자동맹 상권에서 제공하는 물건들이 전시됐다. 독일인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자, 모피뿐만 아니라 노브고로드에서 생산되는 금은세공품들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자동맹은 자체로 노브고로드에 ‘페테르고프’(Peterhof)라는 복합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여, 숙박시설과 창고, 마구간, 심지어 감옥까지 건설했다. 한자동맹과 상호 무역법을 공유하고 신용 거래를 구축함으로써 노브고로드의 무역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한자동맹의 항구도시인 리가(Riga)와 레발(Reval, 현재의 Tallinn)을 거치며 무역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일 년에 두 번 상단들은 레발로부터 코틀린 섬(Kotlin, 현재의 크론슈타트)까지 항해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건들이 노브고로드 선박을 이용하여 네바 강과 라도가 호수, 그리고 볼호프 강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 상단들은 노브고로드 당국으로부터 세금 특권과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페테르고프에 있던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법률에 따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관리들에 의해 보호받았다(Hosking 2001, 61-65).

노브고로드는 독립국가를 유지할 때도 수세기에 걸쳐 주변 세력들,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독일 기사단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12세기와 14



세기에 걸쳐 진행된 노브고로드와 스웨덴의 전쟁에서, 스웨덴은 처음에 핀란드, 그 다음에 카렐리아 지역, 그 후에는 노브고로드에 조공을 받치는 지역까지 침공해 노브고로드를 위협했고, 독일 기사단의 경우, 그들은 12세기 이래로 발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노브고로드와 경쟁해야 했다. 모스크바에 병합되기 전까지 노브고로드는 스웨덴과 26번, 리보니아 기사단과 11번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했다. 1240년과 1242년에 걸쳐 덴마크와 스웨덴 봉건영주들이 독일 기사단과 결탁하여 노브고로드와 치른 전쟁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노브고로드는 1240년 네바 강 전투와 1242년 추도 호수의 얼음위 전투에서 스웨덴, 독일, 덴마크 연합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르 네프스키가 러시아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지루하게 이어진 노브고로드와 스웨덴의 전쟁이 일단락 된 시기는 14세기 초반이다. 1323년 8월 12일, 노브고로드와 스웨덴 사이에 체결된 ‘오레호베츠키 조약’(Ореховецкий мир), 혹은 ‘노테베르그 조약’(Нотебергский мир)으로 알려진 평화조약에 따라 양국의 국경선이 정해졌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스웨덴의 국경을 책정했던 최초의 조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Шаск ольский 1987).

그 후로도 노브고로드는 외부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단지 몽골군대와 관계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데, 노브고로드는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노브고로드가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몽골군대가 2차 원정길에서 라잔, 블라디미르, 수즈달, 모스크바 등 러시아의 북동부를 정복하고 노브고로드 방향으로 진격할 쫓겨온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계절이었기에, 몽골군대의 기병들이 노브고로드 남쪽의 습지를 통과하기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역사적 통설이다. 노브고로드인들은 신이 노브고로드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노브고로드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몽골 군대는 열악한 기후 탓을 핑계로 방향을 돌려 스몰렌스크, 플로츠크, 체르니고프 등 러시아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키예프로 향했다. 군사적으로 정복당하지 않았지만, 노브고로드는 이후 몽골의 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다른 한편 러시아의 북동부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공국들은 노브고로드가 축적하고 있는 경제적 부를 차지하고자 14세기 이후부터 노브고로드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벌였다. 대표적인 세력은 트베리 공국과 모스크바 공국이었으며, 외부세력으로는 리투아니아 공국이 노브고로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미하일 야로슬라비치 트베리 공후는 블라디미르의 공후가 되자마자, 공후를 파견하여 노브고로드를 지배하고자 했으나, 트베리 공후가 노브고로드에 간섭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노브고로드인들은 오히려 유리 공후가 통치하던 모스크바 공국과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고자 했다. 지리적으로 모스크바보다 노브고로드와 가까웠던 트베리 공국은 노브고로드를 병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노브고로드인들은 트베리 공후의 야욕에 노브고로드의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반면 그 당시 모스크바 공국은 노브고로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공후는 대부분 노브고로드가 아닌 다른 지역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노브고로드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도와줄 용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스크바 공후가 노브고로드 일에 개입할 여지가 적었기 때문이다(Martin 1995, 249-251).

하지만 점차 모스크바 공국의 세력이 강해지자, 상황이 돌변했다. 트베리를 병합하고 난 뒤에는 모스크바 공후가 노브고로드에 큰 위협이 됐다. 흔히 이반 1세로 통하는 이반 칼리타, 거만한자 시메온를 비롯하여 모스크바의 공후들은 노브고로드가 가지고 있던 자치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1397년 노브고로드와 모스크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모스크바 공국이 북드비나 강을 따라 드비나 강 유역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노브고로드의 모피 무역에 너무나 중요한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노브고로드 입장에서 이 지역을 모스크바 공국에 빼앗긴다는 것은 곧 도시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해인 1398년 모스크바 공국이 이 지역을 노브고로드에 양보했지만, 두 공국의 갈등은 점차 확대됐다.

계속되는 모스크바 공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브고로드는 다른 지역, 즉 리투아니아에 관심을 돌렸다. 당시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 연합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노브고로드 귀족들은 노브고로드가

계속해서 자치권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노브고로드가 모스크바 공국에 병합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부는 모스크바의 공후에게 빼앗길 것이라 생각하고, 노브고로드는 결국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브고로드인들은 노브고로드를 구하기 위해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국가에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사크 보레츠키의 부인 마르파 보레츠키야(Марфа Борéцкая, Марфа-посáдница)가 이 일을 주도했다(Martin 1995, 251-254).

마르파 보레츠키야는 리투아니아 공후인 미하일 올렐코비치를 초대하여, 그에게 자신의 남편이 되어 줄 것과 노브고로드의 공후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레츠키야는 당시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국가의 군주였던 카시미르 왕(Casimir IV Jagiellon, 1440-1492)과 동맹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브고로드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와 동맹을 체결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다. 마틴(Janet Martin)과 렌호프(Gail Lenhoff)는 보레츠키야는 결국 희생양이 됐고, 당시 노브고로드 대주교였던 페오필(1470-1480)이 대공의 승인 없이는 노브고로드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야젤비츠키 조약’(Яжелбиц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1456)을 위반한 죄를 그녀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Martin 1995, 251-254).

모스크바 공국은 노브고로드의 이탈 행위가 야젤비츠키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노브고로드와 전면적인 전투에 돌입했다(Орлов, Георгиев 2004, 71). 1471년 7월 노브고로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셸론 강 전투’<sup>5)</sup>

5) 1471년 7월 14일 아침, 일리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셸론 강 좌안에서 노브고로드 공국과 모스크바 공국 사이에 발생한 전투이다. 셸론 강 어구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솔츠이 지역 스키리노 마을 근처에서 발생한 전투에서 모스크바 공국의 지휘관 다니엘 홀름스키는 약 5,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호수 남쪽에서 노브고로드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당시 노브고로드의 군사들은 20,000명에서 40,000명으로 추정되어 모스크바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으나, 잘 훈련된 모스크바 공국의 군사들에게 참혹하게 패배했다. 모스크바의 자료에 따르면,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투에서 약 12,000명의 노브고로드 군사들이 전사했고, 모스크바 군대는 2,000명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았다고 전해진다. 전투가 종결된 후, 이반 3세는 노브고로드 부대 사령관인 드미트리 보레츠키를 처형하고, 모스크바에 반기를 든 노브고로드 귀족들을 체포했으며, 노브고로드 교회와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던 상당 양의 토지를 몰수했다. 셸론 강 전투이후에 노브고로드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됐고, 결국 1478년 모스크바 공국에 완전히 예속됐다.

에서 노브고로드가 모스크바에 패배함으로써, 노브고로드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많은 자치권들을 박탈당했다. 그 후 1478년 모스크바 공국의 이반 3세는 도시를 재점령하여 많은 노브고로드인들을 살해하고 노브고로드의 상징이었던 베체의 종을 파괴했다. 또한 1471년 이후 제한으로 누렸던 자치권마저 완전히 몰수하고, 도시 전체를 파괴했다. 즉 1478년은 노브고로드가 완전히 모스크바에 복속된 시점이다. 이반 3세는 전체 노브고로드 토지의 약 81.7%를 몰수하여 자신의 영지로 만들었다(Pipes 1974, 93).

### Ⅲ. 노브고로드의 민주적 전통과 정치제도

앞서 서술했듯이, 노브고로드는 러시아 최초의 수도로서 882년 키예프 루시의 두 번째 통치자인 올레그 공후가 키예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러시아의 중심지이자 수도였다. 수도가 키예프로 이동한 후 노브고로드는 키예프 루시의 북방 중심지로서 키예프 공국에 속한 지역이었다. 초창기에 노브고로드의 공후들은 키예프의 공후에 의해 임명됐는데, 보통 키예프 공후의 어린 아들 중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흔했다. 러시아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블라디미르 스바토슬라프(블라디미르 1세)도 어린 시절에 외삼촌 도브르이나와 함께 노브고로드를 통치했으며, 우리가 야로슬라프 현공이라고 부르는 야로슬라프 블라디로비치 역시 키예프 공후로 등극하기 전에 노브고로드에서 공후로서 통치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아들인 므스티슬라프 역시 키예프의 공후가 되기 전에 노브고로드를 통치했다.

1136년까지 노브고로드는 키예프 루시의 두 번째 도시로서 키예프 공후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후는 키예프 공후 자리의 계승서열 첫 번째였다. 어린 시절 노브고로드에서 살았던 야로슬라프(1015-1054) 공후는 키예프 공후가 될 때 노브고로드인들의 헌신적이고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 공후가 된 후 노브고로드에 특권을 부여했고, 도시의 반을 그들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물론 나머지 반은 야로슬라프 공후가 통치했다. 야로슬라프 공후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

고, 그가 키예프 공후가 될 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노브고로드인, 특히 귀족들에게 키예프 공후가 되자마자 많은 특권과 자유를 부여했다. 야로슬라프 공후가 취했던 조치들이 결국 중세 노브고로드 공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키예프 루시의 일원으로 속해 있을 때도 노브고로드는 점차로 강력한 북부 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했으며, 실제로는 키예프의 간섭을 받지 않고 거의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키예프 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었던 노브고로드의 통치제도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것이 바로 베체이다. 베체는 노브고로드와 그 주변지역에서 오랜 기간 유지됐던 의결기구로서, 보통 성인 가장(家長)들이 모여 마을의 공동사를 논의하여 최종 결정했다.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띤 베체가 정확히 언제 형성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베체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기능이다. 베체에서 선출되는 주요 인사들은 포사드니크, 트이사츠키, 그리고 1156년부터는 대주교 후보도 이곳 베체에서 선출됐다(Paul 2003, 252-253).

노브고로드가 키예프 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참여 성격이 짙은 민주적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베체’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본인들 스스로 관리를 선출했다. 이러한 정치제도는 키예프 루시를 형성하고 있던 다른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노브고로드 귀족들은 12세기 중반까지 키예프 공후가 임명 하던 시장인 포사드니크와 독자적인 행정관인 천인대장 트이사츠키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베체를 통해 행정직 지도자들을 선출한 것이다.

그 첫걸음은 1136년에 발생했다. 1136년 노브고로드인들은 공후였던 브세볼로드 므스티슬라비치를 해고했고, 이 후로 공후로 초대하여 해고한 사람들이 전체 선출된 공후의 반을 차지했다. 그래서 브세볼로드 므스티슬라프 공후를 해고한 1136년을 노브고로드가 키예프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브고로드인들이 브세볼로드 므스티슬라비치를 해고한 이유는 그가 노브고로드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촌인 야로폴크 공후의 부탁으로 페레슬라블을 통치하기 위해 노

브고로드를 떠났던 브세볼로드 공후는 노브고로드로 돌아오고 싶어 했으나, 노브고로드에서 죽겠다고 맹세한 브세볼로드 공후가 노브고로드를 떠나자 노브고로드인들은 이미 그가 맹세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해임했던 것이다(Franklin 1998, 342-344; Martin 1995, 102). 이후 베체를 통해 노브고로드인들은 직접 공후를 선출하거나 초대해서 임명했다. 그 결과 이후 노브고로드의 공후는 고용된 임명직 관리로 전락했다.

권한이 제한되고, 자식에게 권력을 승계할 수도 없었지만, 공후는 노브고로드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1478년 모스크바 공국이 노브고로드를 병합할 때까지 노브고로드에는 약 100명의 공후가 있었다. 이들 공후 중에서 많은 수가 베체에 의해 초대되어 공후로 선출됐다가 다시 베체에 의해 해임되기도 했다. 노브고로드가 아닌 다른 지역출신 공후들 중에서 선출된 노브고로드 공후들은 먼저 토착 노브고로드 귀족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일종의 임용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으며,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했다. 고대 계약서에는 초대된 공후 중에서 트베리 출신의 공후 5명, 모스크바 출신의 공후 4명, 리투아니아 출신의 공후 3명이 서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노브고로드 공후의 가장 큰 업무이자 주요 역할은 군사 지도자로서 도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노브고로드 교회를 수호해야 했으며, 법정을 개설해야 했다. 만약 공후가 도시에 없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를 대신해서 재판을 중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인 포사드니크가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포사드니크가 출석하지 않은 재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어떠한 법적 결정도 포사드니크의 승인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노브고로드 공후는 포사드니크의 승인 없이 토지를 분배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수 없었다. 더욱이 노브고로드 공후는 노브고로드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그 자신이 직접 노브고로드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노브고로드 공후는 급료를 받고 ‘고용된 관리직 공후’였다고 할 수 있다(Riasanovsky 2011, 123, 127-128). 계약서에 따르면, 노브고로드 공후는 단 한명의 노브고로드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소환하거나 추방할 수 없었다. 공후의 거처는 두 곳에 마련됐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공후는 도시 중심지에 거주할

수 없었다. 그가 거처하는 곳은 소피아 성당 지구 맞은 편 볼호프 강 건너 남쪽에 위치한 이른바 ‘야로슬라프 시장’으로 불리는 시장 근처 혹은 시장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더 떨어진 ‘류릭 거주지’(Рюриково го родище)였다.

공후 이외에 중세 노브고로드의 정확한 통치조직 및 행정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동시대의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브고로드의 고유한 제도와 행정체계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노브고로드의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사드니크, 천 명의 무리들을 이끈다는 의미의 천인대장 트이사츠키, 대주교, 귀족들이다. 몇몇 학자들은 노브고로드의 대주교가 당시 노브고로드의 실질적 행정수반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주교가 교회의 수장으로서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고위 행정직과 기능과 역할 면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브고로드의 실질적인 행정부 역할을 담당했던 집행위원회(Council of Lords, Совет Господ)의 수장이 대주교였고, 집행위원회 회의가 대주교 관구에서 열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랜베르그(Jonas Granberg)는 집행위원회가 실제로 존재했던 집행기구라는 사실에 반대하면서, 이 기구는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주교가 실질적인 행정수반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그가 노브고로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대주교의 주요 업무는 포스코프 지역을 포함하여 노브고로드 교회의 수장으로서 외교사절단을 접견하고, 세속적 문제의 재판을 관할하며, 역시 세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세속적 문제에 있어서는 대주교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족들과 상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후 결정했던 것이다. 대주교 임명절차는 베체를 통해 명망있는 성직자 중에서 대주교 후보 3명을 선출하고, 세 명 중 추첨에 의해서 한 명의 대주교가 선출되면, 모스크바 수좌대주교가 그를 임명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포사드니크이다.<sup>6)</sup>

포사드니크는 베체에서 선출되며, 공후와 함께 노브고로드 국정을 관할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세금을 징수하고, 노브고로드의 현안을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포사드니크이다. 노브고로드의 공후 역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포사드니크의 동의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두 명의 관계는 상호 경쟁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자라고 할 수 있다. 즉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는 업무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 중반에는 1명의 포사드니크를 선출하지 않고, 6명의 포사드니크를 선출하기 시작했다. 선출된 6명의 포사드니크들은 평생동안 직위를 간직할 수 있었는데, 매년 그들 중에서 한 명씩 ‘수석대표’(Степенной Посадник)를 선출했다(Martin 1995, 102-104).

노브고로드의 행정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불호프 강을 중심으로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 북부지역은 ‘소피아 지구,’ 시장이 존재했던 남쪽지역은 ‘시장 지구’로 불렸다. 도시의 중심은 5개의 코네츠(Конец)로 구분되는데, 소피아 지구에는 3개, 시장 지구에는 2개의 코네츠가 존재했다. 각각의 코네츠는 중심부 외곽지역으로 ‘파트니차’(Пятница)로 불리는 구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즉 총 5개로 이루어진 파트니차는 동일한 코네츠에 속한 외곽지역이다. 중심부를 구성하는 코네츠는 다시 몇 개의 ‘소트냐’(Сотня)로 구성되는데, 소트냐는 우리의 ‘동’(洞)과 같이 약 100개의 가구로 구성된 행정구역의 가장 하부단위라고 할 수 있다(Riasanovsky 2011, 126-127). 파트니차 너머의 외곽지역은 다시 동부와 북부지역에 위치한 식민화된 지역과 세금을 납부하던 ‘블로스트’로 구분됐다. 노브고로드 영토에는 몇몇 도시들도 포함됐는데, 그중 프스코프는 13세기에 자치권을 획득했고, 1348년 블로토토보 조약(Болотовский договор)에 따라 노브고로드로부터 독립했다.

스타라야 루사, 스타라야 라도가, 토르조크, 오레췌크와 같은 도시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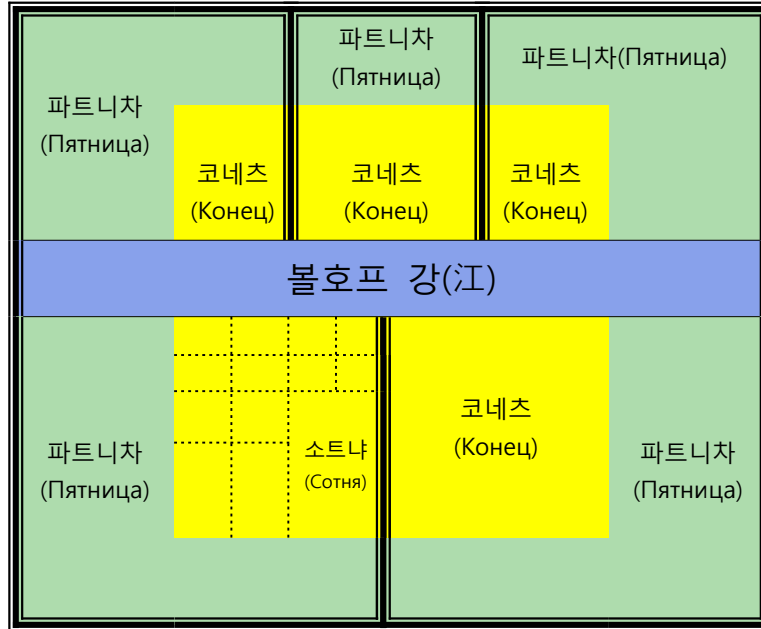
6) 포사드니크는 東슬라브인들의 몇몇 도시와 지역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市長’(глава города)을 의미한다. 포사드니크 사전적 어원은 ‘자리에 앉히다,’ ‘어떤 장소에 두다’라는 러시아어 ‘садить,’ ‘сажать’에서 파생된 ‘посаженный (назначенный)’에서 유래했는데, 그 이유는 키예프 공후를 대신해 ‘임명되어 통치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136년 노브고로드가 키예프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 노브고로드인들은 베체(вече)에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포사드니크를 독자적으로 선출했다.



당시 노브고로드에 속한 지역이었다. 프스코프 역시 처음에는 노브고로드에 속한 지역이었다. 한자동맹에 가입한 13세기 중반 이후로 프스코프는 자치권을 갖기 시작하여 1348년 볼로토토(Bolotovo)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독립했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볼 때는 프스코프는 노브고로드 대주교의 관할하에 있었다. 즉 1589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총대주교 관구를 설립하기 이전까지 노브고로드의 대주교는 ‘대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 대주교’ 직함으로 두 도시를 관할했다.

이렇듯 통치자 및 행정조직에 나타난 중세 노브고로드의 모습을 통해 다른 러시아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제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행정구역과 그곳을 통치하는 지도자급 인사들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엿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브고로드인들의 정치문화와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은 대주교 선출방식에 나타난 그들의 사고체계이다.

<표 1> 고대 노브고로드의 행정체제



도심지역(노란색) / 교외지역(연녹색)

#### IV. 대주교 선출방식에 나타난 노브고로드인의 세계관

노브고로드 교회의 수장으로서 대주교는 기본적으로 종교 업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베체의 ‘집행위원회(Совет Господ)’ 수장의 역할을 맡아 세속 업무도 담당하여 실질적으로는 노브고로드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다. 집행위원회는 베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기관이었는데, 이곳에는 전·현직 포사드니크와 트이사츠키, 귀족 등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Riasanovsky 2011, 129).

중요한 사실은 12세기 중반이후 노브고로드에서는 공후, 지방 성직자,

베체가 노브고로드의 대주교 후보를 선출하여 이후 키예프의 수좌대주교가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거절차는 평신도와 세속적 군주 등 교회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당시의 관행에 어긋났다. 더욱이 988년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진 이후, 러시아 교회의 수장인 키예프의 수좌대주교는 모든 주교들을 임명했으나 유독 노브고로드에서만 이와 같은 관행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주교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도 먼저 후보 세 명을 추천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Paul 2003, 252).

공후나 평신도가 주교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는 러시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서유럽 사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5세기에서 12세기까지 서유럽 기독교 세계에서 진행된 주교 선출방식은 주교, 수좌대주교뿐만 아니라, 일반 성직자와 평신도 등 모든 사람들이 주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후 7세기가 흐르는 동안 지방 공후들의 권력이 강화되자, 공후들은 점차 성직자 선거과정에 개입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식과 교회법에 따라 평신도나 세속 군주를 배제하고 소수의 성직자 엘리트만이 참여하는 방식이 상호 갈등을 빚게 됐다. 이후 공후가 권력을 남용하여 지나치게 주교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자, 하인리히 4세에게 ‘카놋사의 굴욕’을 안겨준 그레고리 7세는 공후나 평신도들을 배제시키고 오직 성직자들만이 주교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방 공후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근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주교 임명이나 성직자 선거에 끊임없이 개입하고자 했다(Paul 2003, 251-252).

동방교회에서는 성직자 선거에 세속적 개입이 일반화되어 황제나 공후들이 성직자들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키는 일이 잦았다. 러시아교회도 서유럽보다는 동방교회의 관행에 더 가까이 있었다. 중세시기 교회 관행에 따르면, 평신도 관리들이 성직자에 임명되거나, 혹은 후보로 선출되어 수좌대주교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초기 러시아 중심지였던 키예프와 이후 중심지 역할을 했던 블라디미르, 모스크바의 공후들은 키예프나 쏘루시 수좌대주교의 추후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주교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체의 공후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sup>7)</sup> 노브고로드 는 상대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교를 선출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존재했다. 물론 노브고로드에서도 독자적으로 대주교를 선출한 시점은 12세기 중반이후, 즉 1156년부터였고, 이 전통은 노브고로드가 모스크바 공국에 멸망하는 시점까지 지속됐다. 그리고 이 역시 묵시적으로 러시아 교회의 수장인 수좌대주교<sup>8)</sup>가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브고로드가 자치권을 획득한 1156년부터 모스크바에 의해 붕괴되는 1478년까지, 정확하게 보면 1471년 마지막 대주교 선거가 있기까지 노브고로드에서 시행된 21번의 주교와 대주교 선거에서 19명이 선거에 의해 선출됐고, 그 중 제비뽑기에 의해 선출된 경우는 총 9번이었다. 키예프의 수좌대주교가 임명한 경우는 오직 두 번이었는데, 1165년 일리아(Илья), 1249년 달마트(Далмат)를 임명한 경우였다. 제비뽑기로 주교를 선출한 사례는 1193년에 처음 발생했는데, 1229년에도 제비뽑기로 주교가 선출됐고, 1359년 이후에는 1458년 이오나(Иона)가 대주교에 임명된 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7명의 대주교가 제비뽑기에 의해 선출됐다(Paul 2003, 259).

공직선거에서 제비뽑기에 등장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아테네에서도 이미 제비뽑기 방식은 시행됐다. 약 기원전 6세기에 형성된 아테네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Isonomia)을 추구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소수가 아닌 다수의 지배에 의해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시험대로서 제비뽑기 방식은 그들이 추구하던 공정성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이었다. 제비뽑기 방식은 주로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

7) 노브고로드는 다른 러시아의 지방 도시와 다르게 자체 왕조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러시아 최초 통치자인 류리크 이후 키예프 출신 공후들이 노브고로드를 통치했는데, 그들은 주로 공후의 아들이나, 신뢰가 높은 공후의 친척들이었다. 1136년 이후 노브고로드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기 시작했는데, 종종 공후를 초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노브고로드인들은 공후를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후를 직접 해임하기도 했다. 14세기 전반에는 약간의 예외는 있었지만 노브고로드의 공후는 보통 블라디미르의 공후가 겸직했다. 그 결과 노브고로드가 자치권을 행사했던 시기에 노브고로드의 공후는 단순히 ‘임명직 관리’로 볼 수 있었다.

8) 1589년 모스크바 교회가 총대주교구의 지위를 획득하기 전까지 러시아 교회의 수장은 수좌대주교(Митрополит)였다.

용됐는데, 민주주의에 대해 초창기에 개념 정의를 시도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역사』의 저자로 잘 알려진 헤로도투스 역시 제비뽑기 방식이 물질적 유혹으로 인한 타락 가능성이 있는 선거보다도 더 민주적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아테네의 선거방식이 노브고로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노브고로드에서 시행된 제비뽑기 방식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노브고로드인들이 고대 아테네에서 시행된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분명한 것은 1156년 처음으로 노브고로드인들이 대주교를 선출할 때와 다르게 1193년에는 베체에서 세 명의 후보자가 선출되고, 그 세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제비뽑기 방식에 의해 대주교 후보로 추천되어 추후 수좌대주교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베체에서 선출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변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노브고로드가 독립을 유지하던 시기에 명확한 주교선출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브고로드가 모스크바에 병합되기 이전까지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은 별다른 저항없이 지속됐다.

연대기에 기록된 대주교 후보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총 20명의 후보자 이름과 출신배경이 등장한다. 기록된 7개의 사례 중에서 세 명의 후보자 이름이 모두 거론된 경우는 6번이고, 1274년의 선거에서는 두 명의 이름만 언급됐다. 20명의 후보자 출신배경을 살펴보면, 수도원장 12명, 대주교 집사(Ключник) 2명, 주교 1명, 참회승(Духовник) 1명, 사제 1명, 일반 수도승 1명, 그리고 지위가 불명확한 그리스인 2명이다. 이 중에서 대주교로 선출된 사람들은 수도원장 4명, 대주교 집사 1명, 참회승 1명, 수도승 1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높은 수도원장이나 주교뿐만 아니라, 사제, 집사, 참회승, 일반 수도승과 같은 하위 성직자들이 후보자로 선출됐고, 이들 중에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사, 참회승, 수도승 출신이 대주교로 선출됐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 대주교가 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선발 기준이 출신배경뿐만 아니라, 신앙심과 신실한 생활태도, 존경의 대상 등 합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aul 2003, 264-265).

베체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세 명의 대주교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단지를 노브고로드 성 소피아 성당의 제단에 올려놓고, 나이 많은 장사제,<sup>9)</sup> 장님, 혹은 공후의 어린 유아를 통해 단지들을 하나씩 베체로 가져간다. 제단에 남겨진 마지막 단지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바로 대주교 후보로 확정된다(Paul 2003, 272). 단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면, 최대한 선거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브고로드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져 있다. 장님이나 어린이, 연로한 장사제를 추천인 당사자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정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천의 공정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정치적 타산이나 경제적 이득 없이 오로지 신의 선택이라는 확률 법칙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확률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에 따르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의 선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들의 세계관을 말한다.

## V. 결론

노브고로드에서 시행된 베체의 존재나 대주교의 선출방식에서 나타난 제비뽑기방식은 당시 러시아 및 서유럽 세계의 공직선거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노브고로드가 러시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초기 키예프 공후가 통치할 시기에, 노브고로드는 야로슬라프 공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그의 정치적 배려 덕분에 노브고로드에는 자치권

9) 여기서 말하는 장사제(Архисвященник)는 사제(Священник)와 보제(Дьякон)를 포함하여 ‘백 수도승’으로 분류되는 교구사제 성직자이다. 이들은 가족을 거느릴 수 있으며, 교회로부터 최소한의 토지를 할당받았다. 흔히 러시아 역사에서 성직자와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할 때, 이들 교구사제와 일반 농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하는 데, 그 이유는 이들이 교회로부터 최소한의 토지만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실하지 못한 사제들의 경우 다양한 명목을 내세우며, 일반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다.

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둘째, 1054년 야로슬라프 현공의 사후, 키예프 루시는 여러 공국으로 분열됐고, 그 결과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인의 부족연합, 혹은 연합체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분권화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지역 중심지들의 홀로서기 전략이 유효했던 시기에, 노브고로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단지 베체의 의사결정과정과 노브고로드에서 발전한 제비뽑기 선거방식 때문에, 노브고로드가 러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더 민주적이었고, 노브고로드는 러시아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베체가 가장들의 모임에는 분명하지만, 노예 계층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는 아니었다. 베체 역시 중세의 신분적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제비뽑기 방식도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노브고로드인들이 처음으로 고안한 것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 사회나 성경에서도 분명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노브고로드인들이 아테네의 방식을 따랐다면, “제비뽑기로 결정된 사람은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대주교를 선출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성경 작가들과 노브고로드 연대기 작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제비뽑기 방식은 인간의 선택 메카니즘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따라 구동되는 절차’라는 중세적 믿음 속에서 노브고로드인들은 민주주의와 신의 선택을 통해 겸양과 겸손의 미덕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신이 대주교를 선출했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은 공직은 귀족들의 정치적 분쟁이나 계파간의 갈등을 초월하여 정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정을 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대주교 후보의 출신배경을 고려해볼 때 노브고로드인들은 중세가 갖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의 ‘평등’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노브고로드의 정치문화적 전통은 베체나 제비뽑기와 같은 구조적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브고로드인들이 시행한 제도의 운영 속에 포함된 실질적 내용에서 나타난 민주적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브고로드 공화국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베체라는

실재적 기구의 존재 여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 나타난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출신성분이나 신분고하에 따라 공직자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 신실한 종교적 믿음, 정직한 삶의 태도 등의 기준에 따라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지도자로 선발된다는 점이야말로 중세 노브고로드인이 가진 민주적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소노미아'(Isonomia)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세적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자유민들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베체와 고위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주교 후보로 선출되는 대주교 선거과정에 나타난 절차를 고려할 때, 노브고로드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소노미아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노브고로드인들의 민주적 전통과 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황성우(2009). “발트 해-흑해 교역로와 키예프 루시의 태동.” 『동유럽연구』. 제22권, pp. 249-272.
- 황성우(2011). “수로를 통한 러시아 공간의 팽창.” 『동유럽발칸학』. 제13권. 제1호, pp. 397-423.
- Franklin, Simon and Shepard, Jonathan(1998). *The Emergence of Rus 750-1200*. London and NY: Longman.
- Hosking, Geoffrey(2001). *Russia and the Russian: A Histor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 Jackson, Tatjana N.(2008). “Novgorod the Great in Baltic Trade before 1300.” *Acta Borealia*, Vol. 25, No. 2, pp. 83-92.
- Kerner, Robert J.(1971). *The Urge to the Sea: The Course of Russian History*. NY: Russell & Russell.
- MacKenzie, David and Curran, Michael W.(1977) *A History of Russia and the Soviet Union*. 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s.
- Martin, Janet(1995). *Medieval Russia: 980-1054*. NY: Cambridge Univ. Press.
- Paul, Michael C.(2003). “Episcopal Election in Novgorod, Russia 1156-1478.” *Church History*. Vol. 72. No. 2, pp. 251-275.
- Pipes, Richard(1974). *Russia under the Old Regime*. NY: Charles Scribner's Son.
- Riasanovsky, N. V. and Steinberg, M. D.(2011). 『러시아의 역사, 상』. 조호연 역. 서울: 까치.
- Utechin, S. V.(1963). *Russian Political Thought: A Concise History*. NY: Frederick A. Praeger Inc..
- Vernadsky, George(1973). *Kievan Russ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 Vlasto, A. P.(1970). *The Entry of the Slavs into Christendom: An Introduction to the Medieval History of the Slav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Wieczynski, Joseph L.(1976). *The Russian Frontier: The Impact of Borderlands upon the Course of Early Russian History*. Charlottesville: Univ. Press of Virginia.
- Вернадский, Г. В.(1996). *Древняя Русь*. Тверь и Москва: ЛЕАН АГРАФ.
- Греков, Б. Д.(1953). *Киевская Русь*.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Скрынников, Р. Г.(1997). *История IX-XVII вв*.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есь Мир.'
- 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 Перевод Д. С.(1991) Лихачева. Петрозаводск: Карелия.
- Платонов, С. Ф.(1996). *Полный Курс Лекций по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Петрозаводск: АО Фолиум.
- Орлов, А. С., Георгиев В. А. и др(2004).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ПРОСПЕКТ.
- Шаскольский И. П.(1987). РУССКО-ШВЕД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1323 г. И ОРЕХОВЕЦ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Борьба Руси за сохранение выхода к Балтийскому морю в XIV веке*. Л. Наука. [http://www.kirjazh.spb.ru/biblio/shask\\_14/shask6.htm](http://www.kirjazh.spb.ru/biblio/shask_14/shask6.htm). (2012년 2월 1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12년 04월 03일 |

|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1 (2012)

## Medieval Novgorodian World Viewpoint in Election by Drawing Lots

Sung-Woo Hwang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Novgorod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ities in medieval Russia. It served as one of the strategic space in trade routes from Baltic sea to Black sea. And so Novgorod became one of the wealthiest cities in Russia during the Middle Ages.

In 1156 Novgorodians dismissed their prince, *kniiaz*. From then they had elected their prince by themselves in veche, or city-assembly of Novgorod. Novgorod's veche itself chose not only prince, but also posadnik(mayor), tysiatskii(military commander), bishop, archbishop. This unique method continued to the end of Novgorodian independence in 1478. After Moscow principality took control of the Novgorod, this tradition disappeared.

The important is that veche enabled it to select their leaders. However, the reason for calling Novgorod as democratic state is that it is not veche, but their mental mechanism. Taking account of the facts, that all the citizens in Novgorod took part in election, and bishop or archbishop were chosen by drawing lots, Novgorodians had kept in mind the principle 'isonomia,' that is to say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In the long run, despite of medieval limitation that veche is thought to have considered of the major landholders in the Novgorodian lands except for slaves in the city, we can consider medieval Novgorod as

168 아태연구 제19권 제1호(2012)

democratic state.

Key words: Russia, Novgorod, Veche, Isonomia, Lots